

경계의 밖

하늘은 무한고
별은 많다
나는 부족하다
그러나
보이는 것 내 안의 틀
진실은
저 언덕 너머
말없이
대답한다.

"당을 누르는 것, 그것이
이성의 한계다."

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

고전 도서명	순수 이성 비판 <임마누엘 칸트>
작품 설명	이 그림은 하늘과 별 그리고 고요한 언덕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며 자연과 우주의 신비, 인간의 인식의 경계를 떠올리게 한다. 현상과 물자체, 시간·공간의 선형적 형식, 이성의 한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 칸트의 <순수 이성 비판> 철학을 반영하여 서정적으로 표현했다.